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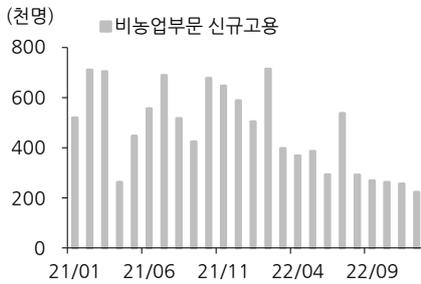
Macro Review

미국 고용 호조의 이면

▶Economist 임혜윤 hylim@hanwha.com 02-3772-7728

[주요 데이터 및 차트]

12월 미국 고용, 22.3만명 증가하면서 예상치 상회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로 0.1%p 상승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미국 고용 둔화 조짐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근로시간, 주간 임금 감소, 특정 산업에 집중된 신규 고용 등은 기업들이 수요 위축에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계 소비여력 약화로 이어지면서 경기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2월 고용, 예상치 상회했으나 둔화 흐름 지속

12월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은 전월에 비해 22.3만명 증가하면서 예상치 상회. 의료서비스(+7.4만명), 레저/관광(+6.7만명) 등 서비스업이 고용 회복을 주도. 제조업 고용(+0.8만명) 증가세는 둔화

실업률은 3.5%로 전월대비 0.1%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로 소폭 상승(+0.1%p). 실업률 하락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반영한 것. 경제활동참가율 반등은 노동공급 측면에서 우호적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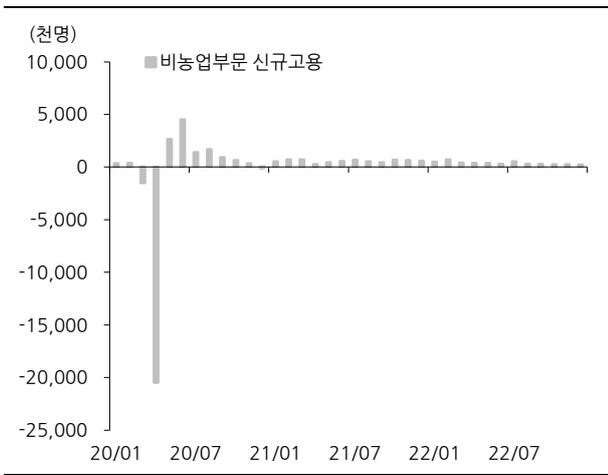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대비 0.3%(전년동월대비 4.6%), 생산직 및 비관리직 임금은 전월대비 0.2%(전년동월대비 5.0%) 상승. 대체로 임금 상승세 둔화됐으나, 레저/관광(전월대비 +0.7%), 도매업(+0.6%), 건설업(+0.4%) 임금 오름세는 강화

근로시간 감소 등 구인수요 위축은 가계 소비여력 약화 요인

금번 고용지표는 양호했지만, 둔화 조짐도 꾸준히 강해지고 있다는 판단. 1) 주간 임금(Weekly earnings)은 근로시간 감소를 반영해 지난 달 보다 줄었고, 2) 정부 고용을 제외한 민간 고용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1Q22: 52.7만명→2Q: 34.8만명→3Q: 31.2만명→4Q: 21.3만명, 월평균 기준), 3) 신규 고용이 특정 산업(레저/관광 및 의료서비스)에 집중됐음. 이는 고용 둔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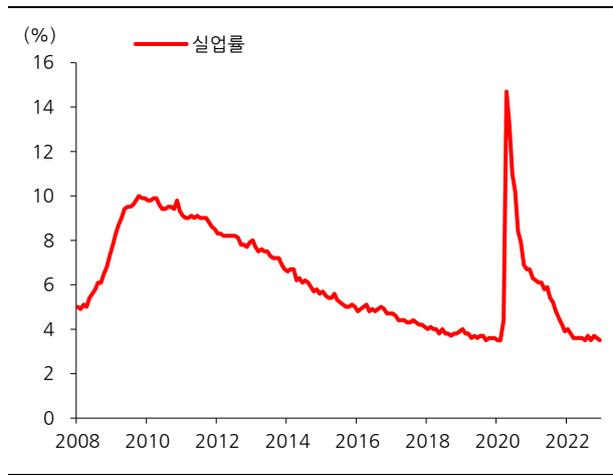
근로시간 감소와 민간 고용 회복세 둔화는 공통적으로 기업들이 수요 둔화에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함. 이러한 변화는 가계 소비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앞으로는 Headline 지표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주간 임금 등 임금과 관련한 세부지표에 주목할 필요

[그림1] 12월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은 전월대비 22.3만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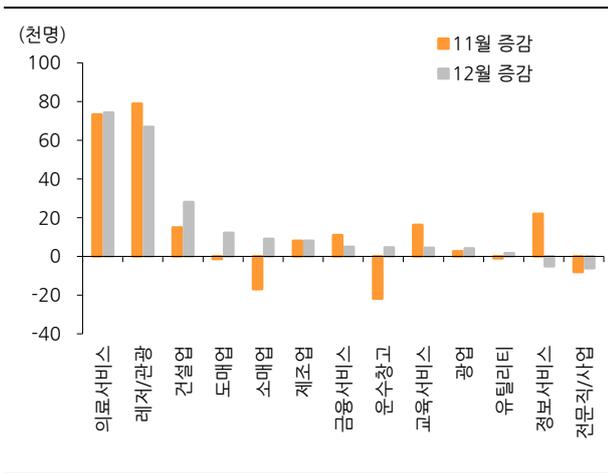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실업률은 3.5%로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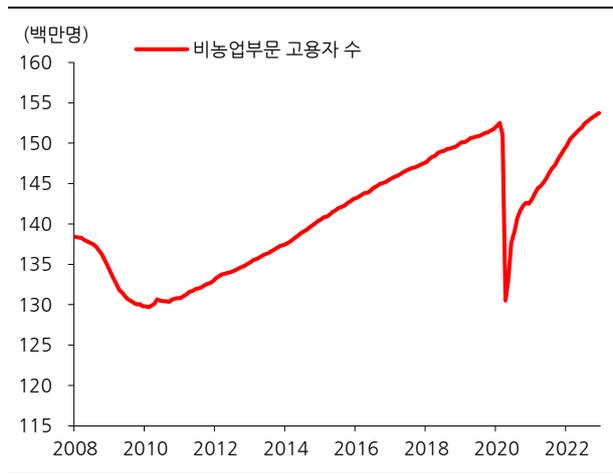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서비스업이 고용 회복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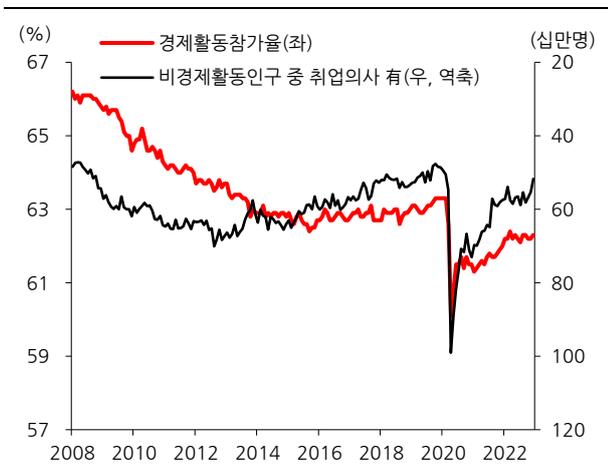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고용 증가세는 둔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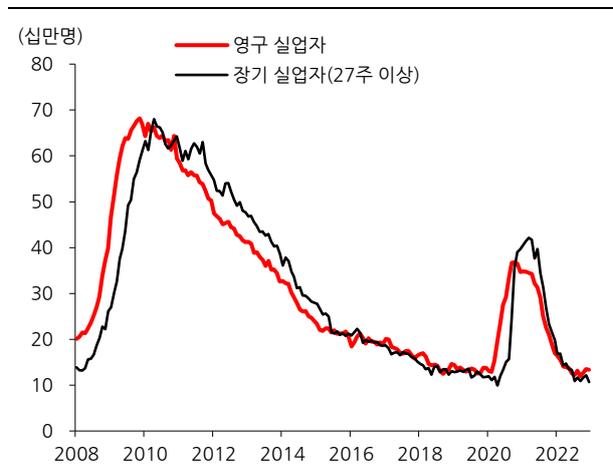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경제활동참가율, 4개월 만에 전월대비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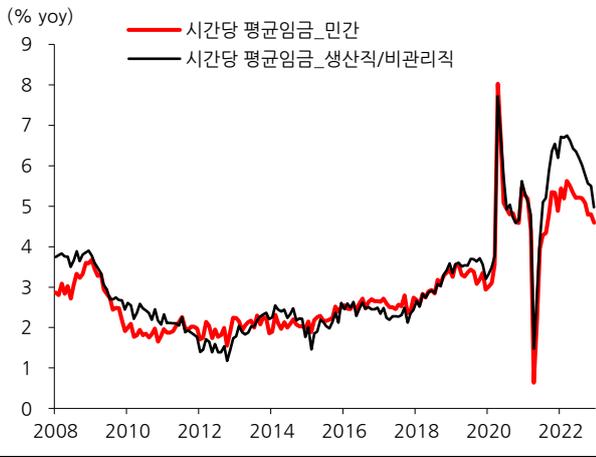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영구 및 장기 실업자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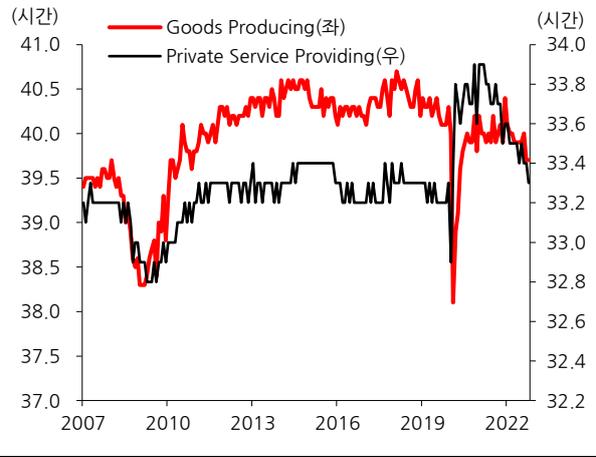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세 소폭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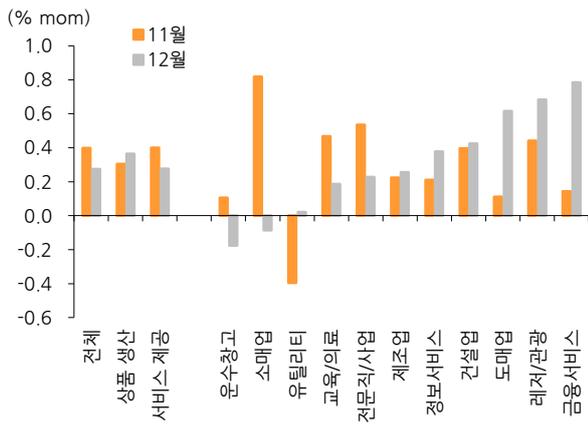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주당 근무시간 감소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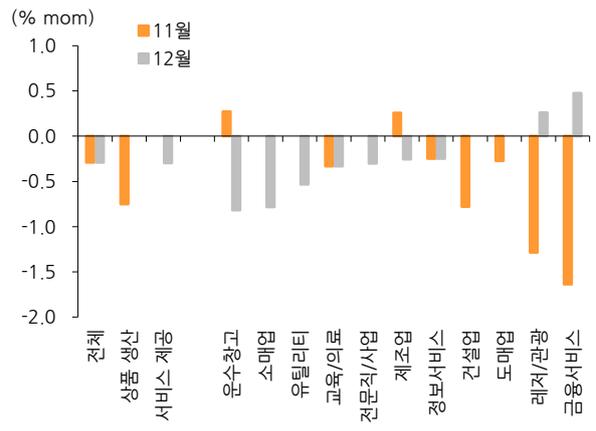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시간당 평균임금: 서비스업 중심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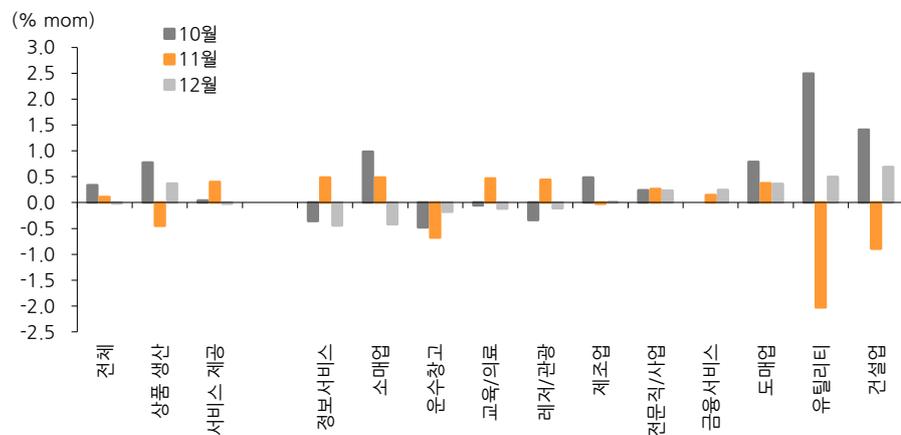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주당 평균 근무시간: 일부 산업 제외하면, 전월대비 감소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근무시간 감소로 주간 임금(Weekly earnings) 상승세 둔화



주: 주간 임금은 시간당 평균임금*주당 평균 근로시간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